

▶ 의생활

여성 헤어스타일에 대한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여성 헤어스타일의 퍼머여부,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며,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설계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3×3(퍼머여부×헤어길이×헤어컬러)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20대 여성의 상반신 모습으로서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 것이다. 퍼머여부는 웨이브진 퍼머머리와 직모를 사용하였고, 헤어길기는 짧은 머리, 중간길이, 긴 머리였으며, 헤어컬러는 검정, 갈색, 밝은색(밝은 갈색)으로 변화시켰다. 이미지 평가를 위하여 15개 문항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극물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문항 1개를 포함하였다.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9개 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39세 남성 154명이었으며, 1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여성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는 4개 요인으로 도출되어 개성, 품위, 능력, 매력성으로 분류되었다. 퍼머여부는 개성, 품위, 매력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직모는 퍼머보다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고 퍼머는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긴 머리는 중간 길이와 짧은 머리에 비해 품위가 높았고, 짧은 머리는 능력 요인이 가장 높았다. 밝은색은 개성이 높았고, 품위가 낮게 지각되었다.

퍼머여부와 헤어길이에 따라 매력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중간길이의 직모는 퍼머보다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퍼머여부와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밝은색 퍼머는 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검은색 직모는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에 따라 매력성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남성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긴 갈색머리였고, 중간 길이의 갈색머리는 매력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품위 평가는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긴 갈색 직모가 가장 품위가 높았다.

자극물에 따라 선호도 평가가 달리 나타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긴 갈색 직모였고, 두 번째로는 긴 검정색 직모가 선호되었다. 중간길이의 밝은색 퍼머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는 짧은 길이의 밝은색 퍼머의 선호도가 낮았다.

지각자의 연령별로 볼 때 짧은 직모, 검정색 머리, 밝은 갈색 머리는 18-19세 연령 집단이 선호하는 편이었고, 20대 후반과 30대 남성은 10대 및 20대 전반보다 밝은 갈색 머리를 싫어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남성들은 여성의 짧은 머리를 긴머리보다 능력있게 보았고, 퍼머는 개성적으로, 직모는 품위있게 평가하였다. 긴머리는 품위있게 보면서 선호도도 높았는데, 특히 긴 갈색 직모를 가장 선호하였다. 10대는 헤어컬러 선호에서 다양한 색을 수용하는 특성이 있었다.